

마포구시설관리공단, 새내기 직원 조직 안착 이끄는 ‘온보딩 프로그램’ 성료

직무 교육부터 힐링 체험까지 맞춤형 과정 운영...종합 만족도 5점 만점 기록

2026-06-26 오후 4:19:56

마포타임즈 ✉ mapodesk@hanmail.net



신입직원 온보딩 프로그램 현장 견학 활동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./사진제공=마포구시설관리공단

마포구시설관리공단(이사장 직무대행 황진택)이 신규 임용된 직원들의 안정적인 조직 적응과 소통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한 맞춤형 교육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. 공단은 지난 6월 19일 본청 대회의실 및 주요 사업장에서 ‘2026년 상반기 신입직원 온보딩 프로그램’을 진행했다.

이번 교육은 임용된 지 6개월 미만인 신입직원과 참여를 희망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기획됐다. 주요 교육과정은 공단 현황 및 주요 추진 사업 소개, 신입직원으로서의 역할과 기본자세, 직장 내 비즈니스 매너 및 에티켓, 생성형 AI 활용 직무 교육, 협업 기반의 긍정적인 조직문화 형성 등 실무와 조직 적응에 직결되는 핵심 내용들로 채워졌다.

특히 단순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큰 호응을 얻었다. 참여자들은 ‘6월의 크리스마스 트리 만들기’와 ‘미니 화분 씨앗 심기’ 등의 힐링 세션을 통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, 주요 사업장 중 하나인 영리종합사회복지관을 직접 방문해 현장 업무를 생생하게 이해하는 견학 일정도 소화했다.

프로그램 종료 후 진행된 성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, 참가자들의 종합 만족도는 5점 만점에 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. 신입직원들의 자체 조직 적응도 역시 교육 전 평균 4.0점에서 교육 후 4.76점으로 대폭 상승했으며, 온보딩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인식 또한 기존 3.4점에서 5.0점으로 만점을 기록해 교육의 실효성을 입증했다.

과정에 참여한 직원들은 동기들과 소통하며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타 사업장의 현장 업무 체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였다는 소감을 전했다.

공단 관계자는 “새 일원이 된 직원들이 조직의 핵심 인재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 집중했다”며 “앞으로도 소통과 체험에 기반한 다양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직원들의 성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”고 강조했다.

